

제2편 분야별 성과 및 계획

제9장

울주문화재단

638	제1절 일반현황
641	제2절 주요사업 추진현황

제 1 절

일반현황

집필 | 울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1. 연혁 및 운영전략

가. 연혁

구 분	주 요 내 용
2020. 2.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설립적정)
2020. 4.	울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6.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2020. 9.	창립 이사회 개최
2020. 10.	울주문화재단 설립
2020. 11.	출범식 개최
2021. 1.	울주문화예술회관, 서울주문화센터, 울주생활문화센터 위탁
2021. 7.	오영수문학관 위탁
2021. 10.	2021 울산옹기축제 개최
2021. 10.	2021 울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축제 개최
2021. 10.	2021 울주오디세이 개최
2022. 1.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 및 조직개편
2022. 2.	제10회 대한민국콘텐츠대상(울산옹기축제)
2022. 3.	대곡천 암각화군 서체2종 개발 완료 및 배포
2022. 10.	울주문화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new가치전략체계 발표
2022. 11.	울주문화재단 조직진단 실시
2022. 12.	(재)울주문화재단 제2기 임원 임명

나. 운영전략

지역문화예술 기반 조성	- 문화예술창작공간발굴 및 활성화 - 문화예술 커뮤니티 플랫폼 강화 -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 권역별 문화자원 조성
참여형 문화예술 확산	- 생활밀착형 콘텐츠 개발 및 생활문화 활성화 - 공연, 전시 공간 운영 활성화 - 콘텐츠 홍보마케팅 활성화 - 문화예술사업 환류 체계 구축
문화예술역량 강화	- 문화예술기획 역량 강화 - 전문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 지역문화브랜드 강화
ESG 열린경영 실천	- 친환경 경영 강화 - 사회적 책임 경영 실천 - 경영관리체계 선진화

2. 조직 및 사무

가. 조직

1) 기구



2) 정원 및 현원

(단위:명)

구분	계	대표이사	사무국장	팀장·관장	4급	5급	6급	연구직	공무직
			2급	3급					
정원	42	1	1	6	3	10	19	1	1
현원	36	1	1	5	2	4	22	0	1

나. 사무

부서명	담당사무
경원지원실	• 제·규정, 조직 업무 • 인권, 윤리경영 • 예산편성 및 지출, 결산 • 이사회, 자문위원회, 노사협의회 운영 • 인사·노무·계약·채용 관리 • 물품·자산·기록물 관리 • 경영평가 및 성과 관리
생활문화팀	• 울주문화배달 “울주공연배달”, “마을공감 놀이터”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만족도 조사, 공연, 체험, 전시) • “울주 이바구를 찾아서” 국비공모사업 추진 • 생활문화 연간 사업 추진
미디어홍보팀	• 통합 홈페이지 관리 • 웹진 및 출판물 기획, 뉴미디어 플랫폼 관리 • 대곡천 암각화군 콘텐츠화 사업 • 홍보플랫폼 관리 및 SNS콘텐츠 기획 • 웹진서포터즈, 울주문화크리에이터 관리 • 보도자료 배포
문예진흥팀	• 울주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획 운영 • 야간경관 전시 기획 운영 • 울산옹기축제 기획, 옹기공모전 기획 운영 • 간절곶 해맞이 행사 기획 운영 • 신박한 예술지원 기획 운영
시설운영팀	• 오염수문화관 행사 기획 및 운영 • 서울주문화센터 운영 및 아카데미 운영 • 서울주문화센터 시설 유지관리 • 공연장 도우미 및 자원봉사 관리 • 울주생활문화센터 운영
울주문화예술회관	• 울주문화예술회관 공연, 전시, 행사 기획 및 시책 개발 • 국비 지원사업 및 한문연 지원사업 • 울주문화예술회관 대관 관리 • 무대 음향, 조명 등 시설관리 • 전산 장비 유지관리 • 청사 관리

제2절

주요사업 추진현황

1.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집필 |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가. 생활동호회 활성화

울주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연·체험·전시 등의 다양한 분야의 생활 문화동호회들에게 활동 및 발표의 장을 지원하고 동호회 간 교류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2022년도에는 서울주문화센터에서 12월 3일(토) ~ 12월 4일(일)에 22팀의 공연분야 동호회들과 7팀의 체험 동호회들이 참여한 울주생활문화동호회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전시분야 동호회 4팀은 11월 24일(목)부터 울주문화이음1번지 선정공간인 이소갤러리, 선갤러리와 삼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총 3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나. 생활문화페스티벌 성과와 의의

총 33팀의 다양한 분야의 생활동호회들이 참여했던 2022 생활문화페스티벌에는 총 394명의 생활문화동호인들과 함께 약 1,500명의 주민들이 체험, 전시, 공연 등을 함께 즐겼다. 특히 민간 생활문화공간으로 확대한 전시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다양한 분야의 동호인들이 함께하는 페스티벌을 통해 동호회들 간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생활문화활성화

울주문화재단은 지난 2년간의 경험과 생활문화동호회 축제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도부터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울주 권역별로 다양한 분야 동호회들이 함께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는 ‘울주동네축제’와 공연분야 동호인들을 위한 ‘울주동네버스킹’, 주민들과 더 나은 생활문화를 꿈꿀 수 있는 ‘울주생활문화포럼’을 통해 확장성 있는 생활문화를 모색한다.



생활문화동호회 축제(개막식)



생활문화동호회 축제(공연)



생활문화동호회 축제(체험)

2. 울주문화이음1번지

집필 |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가. 민간공간과 협력을 통한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울주문화이음1번지는 주민들의 생활문화 활동 확대에 따른 장소적,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고자 관내 민간문화공간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예술과 생활동호회 활동을 지원한 사업이다. 주민들의 생활 권역과 가까운 문화공간을 활성화하여 읍·면 단위의 생활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문화·예술활동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민간공간 10개소를 선정하여 6월부터 12월까지 예술인들과 생활동호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간 대관료를 지원하였다.

나. 울주문화이음1번지 사업 성과와 향후계획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한 다목적 대관 254회와 전시활동 지원 대관 30회가 개최되었고, 총 3,279명이 본 사업에 참여하였다. 무엇보다 울주문화이음1번지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가 스며드는 행복 울주’ 브랜드 강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2023년에는 권역별 문화거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공간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반 주민들이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놀이배달>과 <일번지 사랑방> 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심류정갤러리_시낭송



거리이음_미술체험



루체아트홀_한울림난타

3. 생활밀착형 “울주문화배달”

집필 |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가.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주민체감형 울주문화배달

울주문화배달은 평소 문화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문화소외 계층 등을 포함한 울주군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과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크게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배달하는 ‘울주공연배달’과 찾아가는 문화 체험을 배달하는 ‘마을공감놀이터’로 구성되어 울주군 어디서나 주민들의 삶 속에 문화예술이 스며들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사하였다.

나. 주민 일상으로 찾아가는 예술공연 <울주공연배달>

울주공연배달은 주민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문예술 단체 19팀, 120명의 예술인과 함께 연중 57회 공연을 추진하였다.

그 중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등의 공공기관들과 협력하여 16회의 공연배달을 추진하여 울주군의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 공감대 형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더불어 장애인, 어르신과 영유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19회의 공연배달을 추진하여 문화소의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 공연배달을 통해 문화예술의 일상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다. 주민 일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체험 <마을공감놀이터>

2022년 마을공감놀이터는 울주군 내 영유아 기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팀, 총 34명의 문화활동가들과 함께 연간 49회 체험 프로그램을 울주군 전역에 배달하였다. 특히, 문화 활동 참여가 어려운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울주군의 자연과 역사 자원을 활용한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과 환경보존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환경 공예와 연극, 미술 등의 다채로운 예술체험을 통해 문화예술의 문턱을 낮추었다.

라. 울주문화배달의 주요성과와 향후계획

생활 밀착형 문화사업, 울주문화배달은 울주군 12개 읍·면으로 총 107회의 문화배달로 10,138명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울주군의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예술인의 활동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문화가 스며드는 행복 울주’를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2023년도에는 12개 읍·면 주민 누구나 수준 높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문화공간과 울주군의 대표 명소 등을 활용한 문화배달을 통해 문화 복지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울주공연배달 진하해수욕장

울주공연배달 온산소방서와
함께하는 포인터 콘서트

마을공감놀이터 극단하얀꼬끼리

4. 「울주 이바구를 찾아서」 전국 공모전

집필 |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가. 울주군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시, 수필 공모전

「울주 이바구를 찾아서」는 시, 수필 부문 전국 공모를 통해 울주군의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선정작을 활용한 파생 콘텐츠를 제작하여 울주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사업이다. 총 82편의 시·수필 작품이 접수되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 2편, 최우수상 4편, 우수상 6편, 장려상 14편으로 총 26편의 우수작이 선정되었다.

나. 선정작 대상 파생 콘텐츠 활용 사업

공모에 선정된 시 부문 16편, 수필 부문 10편의 작품은 시화전, 문학집 제작 등 다양한 파생 콘텐츠로 활용되었다. 시 부문 선정작 26편은 시화 전시 작품으로 제작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높은 울주군 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총 4곳(울주군청,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온산 한마음회관, 울주생활문화센터)에서 5주간 릴레이 전시를 운영하며 시화 작품 엽서도 함께 배포하였다.

또한, 시와 수필 부문 선정작과 작품에 어울리는 삽화가 들어간 ‘2022 울주 이바구를 찾아서 수상작 문학집’을 제작하였다. 문학집은 ISBN(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발급받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

장 자료로 등록하였으며, 울주군 관내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에 문학집을 기증하여 많은 사람들이 울주의 문학집을 접할 수 있게 했다.

2023년에는 지난 2년 간 공모를 통해 발굴된 울주군의 다양한 이야기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활용 사업을 공모하여 지속적으로 울주의 문화 콘텐츠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시화 전시(울주군청)



수상작 문학집

5. 지역 간 연계사업 「동해선 철길 따라 “문화도시樂”」

집필 |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가. 지역 간 통합과 소통을 위한 문화 프로젝트 「동해선 철길 따라 “문화도시樂”」

울주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사업 지역 간 연계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고래문화재단, 부산진문화재단이 협력하여 「동해선 철길 따라 “문화도시樂”」 사업을 추진하였다. 울산과 부산을 오가는 동해선 전철 이용객들을 위한 문화 향유 콘텐츠로 거점 역사(부전역, 남창역, 태화강역)에서 각 지역 예술단체들의 전통, 클래식, 다원 등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고,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35인의 문화기행단을 운영하였다.

특히, 문화기행단들이 동해선 철길을 따라 경험한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SNS기행문으로 기록하여 각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소통하는 공감의 장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울주문화재단은 지역의 한계를 넘어 울주의 문화를 알리고, 교류할 수 있는 지역문화재단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울주의 문화와 예술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발대식(부산 진구)



지역 공연(울산 울주군)

6. 202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집필 | 울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가. 지역문화인력 성장 지원 「202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202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사업은 지역문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교육 및 실무경험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전문인력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울주문화재단이 울산문화재단과 고래문화재단이 협력하여 지난 2021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2022년도에 참여한 40명의 교육생들은 지역특화, 주제강의 등 맞춤형 교육과정 / 재단 및 전국 공모사업 기획·개발을 위한 워크숍 / 지역 활동가 멘토링 / 현장실습 프로젝트 실행(실습비 지원)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문화기획·실행 능력을 향상시켰다.

2023년도부터는 울주를 기반으로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원의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울주문화재단의 다양한 생활문화사업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한 문화인력을 양성하여 장기적으로 울주에서 뿌리를 내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 전문인력을 함께 키워나가고자 한다.



입학식



수료식

7. 대곡천 암각화군 콘텐츠화 사업

집필 | 울주문화재단 미디어홍보팀장

가. 대곡천 암각화군을 기반으로한 서체 개발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발견 50주년을 기념하며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천리 각석」을 기반으로 울산을 대표하는 서체를 제작하는 사업이다. 개발의 전문성과 전국 배포를 위해 (주)한글과컴퓨터와 공동개발 하였다.

2022년 3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를 시작하였으며, 디자인제작 플랫폼 업체(미리캔버스, 망고보드)에도 서체를 등록하여 국민들이 서체를 이용할 수 있다.

나. 서체 이미지

한컴 울주 반구대 암각화체

한컴 울주 반구대 암각화체

한컴 울주 천전리 각석체

한컴 울주 천전리 각석체

8. 소통과 참여의 울주문화 홍보

집필 | 울주문화재단 미디어홍보팀장

가. 웹진 울주Live 발간

온라인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여 친숙하고 편안한 문화재단의 역할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울주문화재단 비전 ‘문화가 스며드는 행복울주’로 생활 속에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 이슈와 재단의 행사 정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을 인터뷰 취재, 전국문화인의 칼럼 등 기사 형식과 울주의 자연, 역사, 관광 등을 소개하는 영상콘텐츠를 합쳐 가독성 높은 웹진으로 제작되었다.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발간한다. 2022년 웹진을 연감으로 제작하여 전국 지역 기초문화재단 및 지역유관기관에 배포되었다.

나. 웹진서포터즈 및 울주문화크리에이터 운영

울주문화재단의 주요행사와 울주 문화·관광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이다. 웹진서포터즈 1기는 총 14명이 모집이 되었다. 22년 5월부터 100건의 기사를 생산하여 홍보를 하였다. 울주문화크리에이터는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디지털 문화 콘텐츠 확산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12명이 모집되었으며, 8월부터 26건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였다. 2023년도 2기를 모집하여 시민 참여형으로 운영을 하여 장기적으로 민관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 영상 이미지



울주Live 발간



울주문화크리에이터 제작 콘텐츠



9. 군민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간절곶 공공미술 프로젝트>

집필 | 울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가. 예술이 함께하는 울주를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간절곶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간절곶을 중심으로 우수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장소 특
정적 공공미술 전시 공모전 및 조각 전시 프로젝트 사업이다. 지난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가 2
인(우성립/최15)에게는 22년 9월 부산 BEXCO에서 열린 ‘제11회 서울국제조각페스타’의 전시 부
스 및 홍보 지원에 이어 12월 10일 간절곶에서 전시를 추진하여 지역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와 대
외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올해부터는 ‘간절곶’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울주’로 전시의 공간을 확대하여 다양한 공간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국제조각페스타 참가



우성립 작품



최15 작품

10. 울주군 일출 명소 브랜드 강화를 위한 야간경관 전시 <빛과 바람의 정원>

집필 | 울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가. 다양한 조형물 설치 및 환경 조성을 통한 해맞이 명소 이미지 제고

야간경관 전시 <빛과 바람의 정원>은 울주군의 일출 명소 브랜드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22년 전시는 토끼해를 맞이하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간절곶 풍차 공원 주변을 조성하였다.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시계 토끼와 함께 코로나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바라는 의미를 담아 전시를 구성하였다. 또한, 정크아트와 MBC에서 제작한 오르골 조형물 및 <간절곶 조각 프로젝트>와 연계로 추진하여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울주문화재단은 매해 새로운 전시기획으로 다양한 전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시공간 전경

11. 울주예술인 소통의 장 “Art+상상”

집필 | 울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가. 예술하기 좋은 울주를 위한 울주상상예술인 소통의 장 마련

울주예술인 소통의 장 “Art+상상”은 예술하기 좋은 울주를 조성하기 위해 울주문화재단과 지

역예술인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열고 실효성 있는 예술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이다. 지난 22년 3월, 공개모집을 통해 5개 예술분야 20명의 ‘울주상상예술인’이 선정되었다. 울주문화재단은 선정된 예술인과 함께 예술분야별 활동과정과 비전, 고충사항을 나누는 1·2차 상상소통회 자리를 가졌고, 지역예술인 역량강화를 강화하고 울주 문화예술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현장워크숍을 추진했다. 사업제안회를 통해 14개의 예술사업이 제안됐으며 예술인과 꾸준한 소통으로 ‘문화가 스며드는 행복 울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울주상상예술인 상상소통회



현장워크숍



사업제안회

12. 공연콘텐츠 창작·개발 「신박한 스테이지」

집필 | 울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가. <퓨전음악극 : 고래의 노래> 신규 공연 콘텐츠 창작

공연콘텐츠 창작·개발 「신박한 스테이지」는 울주의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한 울주문화재단 대표 공연 레퍼토리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21년 신박한 예술지원을 통해 선정된 2개의 단체(내드름 연희단, 플러그 인 사운드)가 협업하여 서로 다른 장르가 융합된 새로운 공연을 창작하였다.

<퓨전음악극:고래의 노래>는 울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반구대 암각화 속 고래를 소재로 하여 경상도 지역의 전통 연희(음악)를 기반으로 판소리, 인디밴드, 재즈 등이 융합되어 동서양의 조화를 이룬 음악을 선보였다. 본 공연은 군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전석 무료로 이틀간 진행되었으

며, 객석 점유율은 98.6%를 달성하였다.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 기준 4.5점을 달성하여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였다.



공연 사진



공연 포스터

13. 울산옹기축제

집필 | 울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2022년에 개최된 제22회 울산옹기축제는 ‘Welcome to 옹기마을’이라는 주제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외고산 옹기마을과 온라인 옹기테마파크 (onggi.or.kr), 유튜브 옹기TV, 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42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만났다.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축제는 주체공연 <울주 판타지: 옹기에 실은 꿈>에서 버티컬 퍼포먼스와 드론 아트쇼, 불꽃 퍼포먼스 등 화려한 무대연출로 옹기마을 할머니 이야기를 담아 감동을 선사했으며 <옹기로 공연>에서는 ‘단디우화’등 전국으로 활동하는 거리에술단체의 공연으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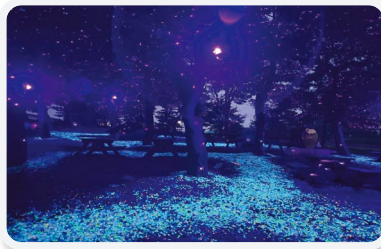
특히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옹기흙을 만지고 던지며 촉감놀이를 할 수 있는 <흙놀이터>에서 어린이 방문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새롭게 선보인 야간 콘텐츠 <별빛야행>에서는 UV라이트와 UV스톤, 레이저 게이트와 포그를 활용한 야간 경관전시로 SNS 사진 맛집으로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객석점유율은 98.6%를 달성하였다.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 기준 4.5점을 달성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확대하였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자 공모한 <주민기획 프로그램>, <나도 옹기스타>에서는 28개팀이 참여하였으며 지역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옹기플리마켓>, <푸드트럭>와 사회적 경제 기업이 운영한 <옹기상생부스> 등으로 먹거리와 살거리가 풍부한 축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23년 울산옹기축제는 5월 개최 예정으로 옹기문화의 정체성과 가치를 표현하는 주제 프로그램과 30~40대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 주민 참여형 콘텐츠를 지속 확대하여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주민주도형 축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개막식



별빛야행



흙놀이터

14. 울주오디세이

집필 | 울주문화재단 울주문화예술회관장

가. 바람과 대지가 함께하는 울주문화예술회관 특별 공연

매년 하늘이 열리는 개천절(10월 3일)에 맞춰 울주군 내 관광 명소인 신불산 간월재 정상에서 진행되는 산상 음악회로 가을 색으로 물들어가는 자연과 사람, 음악이 공존할 수 있도록 대중과 호흡하는 행사로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음악 구성, 자연 그대로의 무대 연출을 통해 특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추진되었다. 재단 출범 이후 해당 사업이 가지는 연속성을 살려 지역민에게 관람문화 형성 도움과 울주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해



를 거듭할수록 울주 오디세이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역 예술가뿐만 아니라 인지도 있는 가수를 산 정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전국 몇 안 되는 공연 중 하나이다.

2022년 열두해를 맞은 울주오디세이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된 후 재단의 첫 야외행사로 관람인원 2,000여명, 유튜브 생중계 영상 1,900여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가수 최백호를 중심으로 강허달림, 악단광칠, 테너 조민웅, 지역팀 갯브라스유 등 전통, 재즈, 월드뮤직 등 다채롭고 알찬 음악장르 구성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의 문화자극심을 되살리며 신불산 간월재 가을을 더욱 붉게 물들였다.



2022 울주오디세이

15. 울주피크닉콘서트

집필 | 울주문화재단 울주문화예술회관장

방구석을 벗어나 야외무대에서 자연을 벗 삼아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문예회관과 군민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고, 가족 또는 친구, 연인이 함께하는 야외 콘서트이다. 일상 회복을 원하는 지역민에게 즐거움과 활기를 선사하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고단한 하루의 마무리를 야외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울주피크닉콘서트

16. 울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 전시

집필 | 울주문화재단 울주문화예술회관장

가. 울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1) 세대&공감

장르와 주제가 구분되지 않고 전 계층의 세대가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주목성 강한 공연을 기획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이고 문화예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된 사업으로 재즈, 클래식, 뮤지컬 세 장르의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많은 사랑을 받았다.



세대&공감

첫 공연은 ‘민경인밴드 with BMK 재즈콘서트’로 문화예술로 충만한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었으며, 두 번째 공연 ‘김응수&크리스토퍼박 클래식 시리즈’는 한오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와 피아니스트 크리스토퍼박의 만남을 주제로 하여 클래식 공연뿐만 아니라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지역의 청년음악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환호 속에서 막을 내린 ‘마이클리&김보경 뮤지컬 갈라 콘서트’로, 울주문화예술회관의 화려한 송년 콘서트를 장식했다. 이처럼 세대&공감 시리즈는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겸비한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2) 울주맛이 문화四色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공연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기획공연이다. 국비를 확보하여 지역 예술가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며, 군민들에게 코로나 블루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획공연으로 매월 마지막 주 문화의날 지정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음악 공연뿐만 아니라 연극, 무용, 아동극, 재즈, 국악, 비보잉&디제잉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폭넓은 연령



울주맛이 문화四色

층의 관객을 모두 사로잡을 수 있는 공연 시리즈로 무대에 올랐다. 지역 예술가와 울주군민이 함께 하는 만남의 장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3) 울주안의 클래식 스케치

세계적 음악가를 소개하고 음악가들의 명곡을 연주자의 유쾌한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렉처콘서트이다. 4월과 11월은 여성 지휘자 김봉미가 이끄는 부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성악가들이 함께 하였고, 오페라와 칸초네 그리고 뮤지컬까지 다양한 곡들의 역사배경을 소재로 스토리텔링 공연을 진행하였다. 6월과 10월은 울산지역의 교수들로 구성된 연주단체인 트리오 아무스가 연주하였고, 작곡가들의 곡을 일상 속의 사물에 빗대어 누구나 쉽게 클래식 음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울주안의 클래식 스케치

울주안의 클래식 스케치는 클래식 애호가뿐만 아니라, 클래식이 생소하게 느껴졌던 관객에게도 호기심을 유발하였고, 잠재적 관객의 저변을 넓힌 공연으로 평가된다.

4) 울주시네마

연속성을 가진 기획 프로그램으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어린이 영화 상영과 예술성 높은 다양성 영화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생활 속 문화공간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획 중 하나로 공연작품이 아닌 상영관으로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 향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문예회관만의 공공성과 대중성을 강조하여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울주시네마

5) 하우스콘서트

다양한 문화 혜택을 군민의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과 해당 주간을 지정하여 '문화가 있는 날'을 자체 기획하였다. 그 중에서도 공연장 무대 위에 좌석을 설치

하여 연주자와 관람객의 경계를 없애 연주 감상에 있어 집중도를 높이고 관람객은 연주자의 숨결 하나하나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특별 기획공연이다.

클래식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클래식 악기의 섬세함과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고, 획일화된 기존의 클래식 공연과 달리 평소 접해보기 힘든 차별화된 다양한 장르의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였다. 매회 포토타임 및 팬사인회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울주문화예술회관의 특색있는 정기 공연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하우스콘서트

6) 방방곡곡 문화공감

전국 방방곡곡에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나눔을 통해 지역 문화예회관 운영 활성화 및 지역 문화누림 양극화를 해소하여 문화예술분야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 국비 지원 공모사업이다. 융복합 미디어쇼 <Harmony of Light>, 하모나이즈와 함께하는 <해피홀릭 콘서트>, 어린왕자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생텍쥐페리> 그리고 <처용-心 : The Sage> 총 4개의 우수공연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지역민에게 다양한 장르 공연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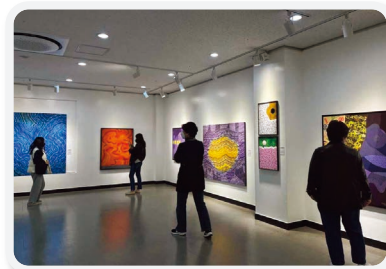


방방곡곡 문화공감

나. 울주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1) 울주아트 지역작가 초대전

울주아트 지역작가 초대전은 울주군을 거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우수한 지역작가를 발굴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2년 8명(장애인 작가 2명 포함)의 지역작가를 선정하여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평면회화, 서예,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작품들로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지역 예술가들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울주아트 지역작가 초대전에서 엿볼 수 있다.



울주아트 지역작가 초대전

17. 서울주문화센터 기획공연

집필 | 울주문화재단 시설운영팀장

가. 서울주문화센터 기획공연

1) 봄을 알리는 포크콘서트

봄을 알리는 포크콘서트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군민들을 문화예술로 위로하고 지역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서울주문화센터가 기획한 2022년 첫 번째 공연이다. 3월 4일, 포크가수 남궁옥분과 김세환을 초청하여 대표적인 포크송인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목장길 따라’ 등을 부르며 지역민들에게 재미와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객석의 50%인 150석으로 제한한 유료 공연임에도 149명이 관람하였으며, 주로 50~70대인 관객들은 90여 분 동안 출연진들과 함께 박수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봄을 알리는 포크콘서트는 서울주문화센터를 알리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는 좋은 계기였다.



봄을 알리는 포크콘서트 공연

2) 울주에서 떠나는 세계여행

울주에서 떠나는 세계여행 #유럽편은 코로나19로 인해 떠날 수 없었던 해외여행을 음악과 함께 공연장에서 문화 여행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서울주문화센터의 시리즈 기획 공연이다. 이탈리아(3월), 스페인(6월), 프랑스(9월), 독일(12월)로 나누어 총 4회 유료로 진행하였으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활발한 홍보 활동으로 울주군민 외 울산, 부산, 경주 등 타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높았다. 2022년 3월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객석을 제한(50%, 150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예매자 불



울주에서 떠나는 세계여행 #이탈리아 편

참도 많았으나, 이후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4회 총 695명의 관객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이 진행되는 90분 동안 콘서트 가이드(해설자)가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하며 음악의 배경이 되는 유럽 각국의 지역적, 역사적 유래 및 음악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덧붙여 관람객들의 음악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여주었다. 이번 공연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콘텐츠 선택의 폭을 넓히고 늘어나는 공연 관람 수요를 충족시킨 동시에 서울주문화센터가 서부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기회였다. 향후 유럽 이외 다른 지역의 문화 여행 편도 기획하여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3) 초대 With 울주 싱얼롱 콘서트



초대 With 울주 싱얼롱 콘서트 공연

초대 With 울주 싱얼롱 콘서트는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유명 음악가와 지역 예술인이 함께하는 서울주문화센터의 기획공연이다. 2022년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공연 중 이전의 무료공연과 달리 유료공연으로 전환한 6월, 12월 공연에만 총 488명(예매가능 좌석의 94%)의 관객이 참석하는 등 지역민들의 높은 문화적 욕구와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던 무대였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주민들

의 적극적 참여 확대를 위해 매회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였고, 장애인 및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티켓 할인도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

9월 싱얼롱 콘서트는 울주군청 야외광장에서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홍보함과 동시에 음악으로 전 세대가 소통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을 연출해내었다. 또한 12월에 진행된 싱얼롱 콘서트 4회차에는 울주군 언양 출신의 유명가수 박군을 초대하고, 50~70대 이상 관객층을 위한 트롯트 특집편을 기획하여 서울주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전체 싱얼롱 콘서트를 JCN울산중앙방송 공동주관으로 개최함으로써 공연 이후에도 실황영상 방송 송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울주문화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2021년부터 시작된 싱얼롱 콘서트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인지도와 긍정적인 관람평으로 2023년에도 연속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4) 코미디 연극-행복하십쇼

코미디 연극-행복하십쇼는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을 웃음으로 위로하는 세대공감 코미디 연극으로, 다양한 장르의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주문화센터의 기획공연이다. 행복하십쇼는 개그맨 윤형빈과 허동환이 이끄는 허둥 사단이 출연하여 펼치는 관객참여형 단막극으로, 공연 종료 후에는 로비에서 출연진과 함께하는 포토타임 이벤트를 진행하여 관객과 출연진이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일 2회 90분 공연에 총 332명이 관람하여, 서울주문화센터 기획공연 입장객 목표치의 110%를 달성하는 실적을 보였다. 서울주문화센터는 앞으로도 누구나 함께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기획공연 운영으로 세대공감, 주민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코미디 연극-행복하십쇼

5) '문화 울주' 감성치유 야외 콘서트

'문화 울주' 감성치유 야외 콘서트는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야외 콘서트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도시 울주군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지역 홍보와 연계하기 위해 기획한 서울주문화센터의 기획공연이다. 두서면 화랑체육공원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료 야외 공연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800여 명이 참여하여 거리두기 완화로 늘어나는 공연 관람 수요를 충족하였다. 현장에서는 (재)울주문화재단 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울주군의 계절별 모습과 숨은 명소를 알렸고, 지역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삶을 즐겁게 만드는 울주문화재단의 역할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 울주 감성치유 야외 콘서트

6) 체코 세베라첵 합창 공연



체코 세베라첵 합창단 공연

체코 세베라첵 합창 공연은 60년 전통의 체코 세베라첵 합창단의 풍성한 무대와 함께 울주·서울주소녀소녀 합창단의 우정 출연으로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주문화센터가 기획한 공연이다. 2022년 11월 서울주문화센터 공연장에서 120분 동안 유료로 진행하였으며, 236명(기획공연 목표입장객 146% 달성)의 관객들에게 문화로 하나된 울주의 모습을 선사하였다. 공연 현장에서는 지휘자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사로 애도의 뜻을 전한 후, 체코의 유명 작곡가 곡부터 영화 OST, 한국의 BTS 노래까지 폭넓고 다채로운 노래를 합창 편곡하는 무대를 선보여 울주군민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연출하였다. 다만,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단위 관람객이 산만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해 향후 공연 관람 예절 안내로 성숙한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연 몰입도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7) 명작 낭독극장 '누나별'

명작 낭독극장은 오영수 선생의 문학작품 '누나별'을 각색한 프로그램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문화공연 시행으로 지역문화콘텐츠 확보와 홍보를 하기 위한 서울주문화센터의 기획공연이다. 남부권, 서부권, 중부권으로 나누어 총 3회 50분씩 무료로 진행하였으며, 전체 387명의 관객이 관람하였다. 단편소설 '누나별'을 각색하여 작품의 이해를 돕는 영상과 함께 전문 배우들이 낭독하는 공연으로, 울산을 대표하는 작가 오영수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울주 고유 문화예술콘텐츠 개발에도 기여하고자 기획한 것이다. 특히 2회차 서부권 공연에서는 수어통역을 추가한 배리어 프리 공연으로



[명작 낭독극장] 오영수 '누나별'

운영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도 좀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예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권역별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를 매년 다회 시행하여 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다.

8) 청소년·수험생을 위한 힐링음악회

청소년·수험생을 위한 힐링음악회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과 일상에 매진한 청소년들의 노고를 교향악단의 클래식명곡 연주로 위로하고 문화예술적 감성을 높여주기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공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한 공연이다. 서울주문화센터와 남부청소년수련관에서 2일간 무료로 진행하였으며, 총 542명의 청소년들에게 영화음악 및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지역 예술단체와 예술인 협연으로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향후 권역별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계층으로 공연 타겟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및 공연장 확보에도 노력하여 군민들의 문화 활동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청소년·수험생을 위한 힐링음악회
(남부청소년수련관)

9)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는 ‘즐겁게 사는 법’을 주제로 관객들에게 강연과 웃음을 함께 전하는 행복 토크 콘서트로, 서울주문화센터가 권역별 찾아가는 공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한 공연이다. 책 ‘인생 뭐 있다’의 저자 이홍렬의 개그보다 더 웃긴 인생 이야기 강연 뒤 이어지는 코미디쇼를 통해 관객들에게 웃음과 함께 생활 곳곳에 있는 인문정신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 1일 100분간 무료로 진행하였으며, 총 177명의 중장년층 관객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피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서울주문화센터는 우리의 삶과 인문학을 연결하는 공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 실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다만, 중·장년층 대상의 프로그램은 공연 홍보 및 온라인 사전예매의 어려움을 미리 감안하여 단체 섭외 또는 전화사전예매의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 ‘즐겁게 사는 법’

18. 서울주문화센터 기획전시

집필 | 울주문화재단 시설운영팀장

가. 서울주문화센터 기획전시

1) 울주 어린이 오감체험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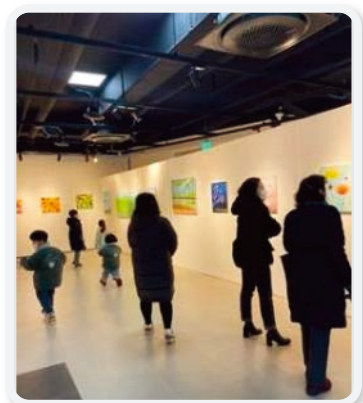
울주 어린이 오감체험 축제는 울주군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작품전시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와 예술적 가치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주문화센터의 기획전시이다. 여름방학인 8월 2주 동안 서울주문화센터 공연장, 전시장, 로비에서 공연, 전시, 체험이 어우러진 어린이 축제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어린이가족 및 단체관람객 참여 확대를 위해 울주 맘카페 및 재단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 홍보를 하고, 인근 유치원·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한 결과 총 3,778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울주 어린이 오감체험 축제는 서울주문화센터가 복합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지역 잠재고객과의 소통 기회를 넓히는데도 기여했다. 차후에도 어린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 운영하여 이용객의 저변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울주 어린이 오감체험 축제

2) 울주 청년작가 초대전

울주 청년작가 초대전은 울주군 지역의 청년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전시로, 총 4명의 지역내 작가들(이채빈, 손나영, 김지효, 한정아)을 선정하여 전시 기회를 제공하였다. 서울주문화센터 전시실과 울주군청 1층의 작은 전시실에서 작가별 약 10일 동안 평면회화 작품들을 전시하였으며, 관람 인원은 총 937명이었다. 이채빈 작가는 '테트라포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었고, 손나영 작가는 따뜻하고 인간친화적인 소재인 '섬유'를 매체로 작가



청년작가 한정아 초대전

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김지효 작가는 반투명한 OPP테이프를 주된 재료로 사용하여 기억과 경험과 시간이라는 주제를 보여주었고, 한정아 작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을 찾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무당벌레의 이미지로 표현한 작품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앞으로도 울주군의 다양한 청년작가 지원사업과 연계해 많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9. 울주생활문화센터 너부마을장터

집필 | 울주문화재단 시설운영팀장

너부마을장터는 울주생활문화센터(울주군 두서면 인보로95)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서로 판매하고 구입하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 장터’로 10월 말 운영되었다.

참여한 22팀이 5종류 20여 가지의 상품을 판매하였고 분류로는 농산물(감자, 부추 고추 등), 가공식품(도토리묵, 꽃차, 배즙, 매실진액 등), 공예품(스톤아트, 고무신, 목공예품 등), 공산품(두루마리 휴지, 다육, 꽃, 화분 등) 등의 상품들이 장터에 출시되었다.



2022 너부마을 장터

울주생활문화센터의 동아리인 청춘마술단, 알로하 우쿨렐레 팀이 축하공연으로 참여하였고, 울주공연배달을 통해 태화루 예술단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연을 펼쳤다. 동아리 축하공연 참여를 동아리 활동 사기진작 및 홍보에 도움이 되었다며 회원들이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다만, 코로나 감염에 대비하여 음식 섭취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즉석식품 판매 등 장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 운영이 금지되어 많은 주민들이 아쉬워하였다.

코로나 방역지침 완화로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이후 처음 진행된 야외행사에 들뜬 지역 주민들이 활기를 찾은 모습이었으며 2023년에는 연 1회에서 4회(5~10월)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20. 오영수문학관 운영

집필 | 울주문화재단 시설운영팀장
울주문화재단 오영수문학관장

가. 문학관 소개

울산 출신 소설가 난계 오영수 선생의 문학혼이 아로새겨진 오영수문학관은 육필원고와 편지, 데스마스크 등 2,000여 점의 유품을 보유하고 있다.

전시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성격의 공간인 문화사랑방, 다목적 홀인 난계홀 등을 갖춘 오영수문학관은 사단법인 한국문학관협회로부터 ‘2020년 올해의 최우수문학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오영수문학관 전경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은 관람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2022년 4월부터 점차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한 해동안 14,967명이 다녀가는 등 2014년 1월 21일 개관 이후 159,250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특히 사람을 귀하게 여긴 작가 오영수 선생의 작품세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잃어버린 도원』과 유고를 모은 『낙향산고』를 발간, 작품을 집대성하는 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포켓북 『요람기』와 『어린 상록수』를 펴내 청소년들도 쉽게 선생의 문학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가 오영수 선생의 삶과 문학세계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나. 프로그램 운영

1) 난계창작교실

문학에 관심있는 지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문학수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개설한 ‘난계창작교실’은 7기까지 배출하여 명실상부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엇보다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비롯해 2020년부터 4년 연속 신춘문예 당선자를 배출하는 등 40여 명이 문단에 데뷔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등단 산실로 명성을 얻고 있다.

2) 길 위의 인문학

가족단위 프로그램인 ‘화장산 숲 그늘에서 노닐다’ 주제의 ‘길 위의 인문학’을 4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하였다.

해마다 색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길 위의 인문학’은 전통한지를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화장산 숲 탐방 및 체험으로 진행, 연인원 500여 명이 참여해 가족의 소중함과 자연사랑정신을 되새겼다.



길 위의 인문학 숲탐방

3) 작가 오영수 선생 43주기 추모행사

5월 14일 오후 3시부터 야외무대에서 유족과 문인, 제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와 추모음악회 등으로 꾸민 제43주기 추모행사를 거행하였다.

추모행사는 진혼무, 해적이 소개, 헌다와 헌화, 추모시 낭송, 추모사 등의 순으로 이어진 추모제와 대전가톨릭만돌린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꾸민 추모음악회로 진행하였다. 특히 제자인 황인수 전 부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회고사를 통해 부산중학교 교사 시절 오영수 선생과의 일화를 소개해 의미를 더했다.



43주기 추모행사 공연 모습

4) 오영수문학관 상·하반기 문학기행

해마다 상·하반기로 진행되는 문학기행은 여백서원과 영녕릉 등을 돌아보는 경기도 일대상반기 문학기행을 5월 31일 다녀온 데 이어 하반기에는 최명희문학관, 혼불문학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윤동주유고보존정병욱 가옥 등 전라남북도 일대를 둘러보는 기행으로 진행하였다.

5) 명사초청 인문학 특강

8월 23일에는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일대에 괴테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전영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 ‘나와 마주하는 시간-시가 놓는 다리에 대하여’를 주제로 주제의 인문학콘서트를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강의를 들은 지역민들로부터 다시 초청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6) 누나별 북 콘서트

2022년 10월 15일 문학관 야외무대에서 마련된 ‘누나별 북 콘서트’는 350여명의 관객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여는마당·들임마당·펼침마당 등으로 나눠 울산학춤과 마임, 음악극 ‘낮도깨비’, 낭송소설 ‘윤이와 소’, 문인극 ‘화산맥이’ 등 오영수 선생의 작품을 모티브로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지역민과 함께 꾸미는 무대의 일환으로 반려식물 및 지역농산물 판매코너 등을 곁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했다는 평을 얻었다.



누나별 북 콘서트

7) 송년 인문학 콘서트

성탄 전날인 12월 24일에는 2층 난계홀에서 ‘고맙습니다’ 주제의 송년인문학콘서트를 개최했다. 한 해동안 문학관 운영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제7기 난계창작교실의 세 차례를 겸해 진행한 송년콘서트는 반도네온 연주, 실내악, 시낭송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꾸몄다. 지역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친친탱고의 반도네온 연주에 이어 독창과 첼로 독주, 실내악, 시낭송 등을 통해 한 해를 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년인문학콘서트
라뮤소년소녀합창단 공연